

<대한음성학회 · 한국음성과학회 초청 강연 (원광대학교)>

# 성조 분석과 음조 기술에서 청각음성학의 일차성 - 반자동 음조 청취 등급 분석기 개발과 관련하여 -

김 차 균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

On the primacy of auditory phonetics

In tonological analysis and pitch description

-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 new pitch scale -

Chagyun Gim

Emeritus Prof.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 gimcg@hanmail.net

## Abstract

King Sejong the Great, his students in Jip-hyeun-jeon school and Choe Sejin, their successor of the sixteenth century, indicated Middle Korean had three distinctive pitches, low, high, and rising (*phyeong-*, *geo-*, *sang-sheong*). Thanks to Hun-min-jeng-øum as well as its Annotation and side-dots literatures in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we can compare Middle Korean with Hamgyeong dialect, Gyeongsang dialect, and extant tone dialects with joint preservers of what was probably the tonal system of unitary mother Korean language.

What is most remarkable about middle Korean phonetic work is its manifest superiority in conception and execution as anything produced in the present day linguistic scholarship. But at this stage in linguistics, prior to the technology and equipment needed for the scientific analysis of sound waves, auditory description was the only possible frame for an accurate and systematic classification. And auditory phonetics still remains fundamental in pitch description, even though modern acoustic categories may supplement and supersede auditory ones in tonological analysis.

Auditory phonetics, however, has serious shortcoming that its theory and practice are too subject to be developed into the

present century science. With joint researchers, I am developing a new pitch scale. It is a semiautomatic auditory grade pitch analysis program. The result of our labor will give a significant breakthrough to upgrade our component in linguistics.

## I. 머리말

중세 국어는 성조 언어였으며, 현대의 방언들 가운데서도 경남 방언, 경북 방언, 강원도의 태백산맥의 동부 지역 방언, 함남 방언, 함북 방언, 연변 방언들은 높낮이가 말뜻을 분화하는 기능을 가진 성조 방언이다. 전라 방언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높낮이가 예측되고, 높낮이를 기준으로 하면 길이가 예측되는 방언 곧 높낮이와 길이가 비긴다는 점에서 준성조 방언이다.

이리하여 우리말의 운율적인 자질을 알기 위해서는 성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조 연구를 하다가 보면 부수적으로 비성조 방언의 운율 분석의 방법론을 터득할 수도 있다. 우리말은 성조언어에서 비성조언어로 발전해 온 언어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못하는 비성조 방언들의 운율 자질에서도 높낮이는 어두에 나타나는 분절음의 종류나 어두 음절의 구조에 따

라서 일정한 음조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음조형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는 성조 방언에서 음조형을 다루는 방법을 원용하면 효과적이다.

현대 음운학의 최신 이론들에서 성조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어느 이론도 어느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성조 체계(보기를 들면 국어의 방언 성조 체계)를 만족스럽게 다룰 수 있는 이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 까닭은 높낮이 인식의 근거가 되는 본질적인 표상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존재의 근거가 불명확한 가상적인 존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체계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성조 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필자의 방점법이 우월함을 증명하는 대신에, 방점법이 중세 국어와 현대의 여러 방언의 성조 체계의 본질을 바르게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음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타당성 있는 성조 이론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리하여 종래의 여러 음운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조 표상과 체계는 가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 II. 종래의 국어사학자들의 방점 소멸에 대한 견해의 문제점

우리말의 변천사 특히 성조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저서들 가운데는 15세기 국어가 성조언어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성조언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며, 성조언어임에 틀림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15세기 국어를 성조 언어로 보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와 견해가 일치하므로, 첫 번째 경우와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반신반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조가 살아진 때가 언젠가에 관심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어가 한 때 성조 언어였다가 비성조언어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두 번째 경우이든 세 번째 경우이든 16세기에서 17세기로 바뀔 때쯤, 또는 거기에서 일십 년도 더 지나지 않는 때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말 중앙 방언의 성조체계가 붕괴 또는 소멸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성조 체계 붕괴의 시기를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세기 이후에 문헌에서 방점 표기가 완전히 살아졌다는 것과 16세기 말에 중엽 또는 그 이전부터 방점 표기에 혼란 또는 문란이 시작되어 16세기 말에 와서는 방점 표기가 극도로 문란해 졌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방점이 살아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방점 표기가 중세 국어처럼 140여 년 동안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이건 지방에서 간행된 문헌이건 변별적인 운율의 표시가 표시가 계속된 예를 찾을 수가 없다. 운율 표기는 연구를 많이 하거나 이 분야에 훈련된 문헌 작자가 아니면 그 표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겠지만, 번거롭고도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방점 표기를 아니 해도 글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언어에서는 운율 표시를 아니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다. 멀리 찾을 것이 없이 현대의 함경 방언, 영남·영동 방언이 아직도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에 운율 표기를 한 문헌을 찾을 수 없는 것만 보아도 첫 번째 이유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방점 표기의 문란 또는 혼란인데, 정말로 방점 표기가 문란 또는 혼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방점 표기가 문란한 것으로 보이는 문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문란한 표기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아야 한다. 방점 표기는 알면서도 번거로워서 방점을 충실하게 표기 아니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방점 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론적인 면에서 실력이 모자랐을 경우도 있을 것이며, 순전히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방점을 빠뜨리거나 잘못 찍을 수도 있다. 맨 마지막의 경우는 문헌 작자가 아닌 목판을 새기거나 금속 활판을 제작하는 사람의 실수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헌은 비록 최초의 목판이나 활판이 완벽한 것이라도 인쇄하는 과정에서 먹물이 튀어서 방점같이 보일 수도 있으며, 있던 방점이 인쇄가 고르지 못하여 안 보이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문헌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점인지 얼룩인지 구별이 어렵게 된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다.

일단 문헌을 앞에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연구자 앞에 놓인 문헌은 그것이 완벽한 것인지, 또는 결함이 다소 포함된 것인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구자의 한계이다. 성조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완벽한 지식을 가진 학자는 있을 수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잘못 표기된 자료가 위에 지적한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서 어느 것에 말미암은 것인지는 밝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일단, 본 연구자는 대상 문헌에 적힌 자료를 가능한 그 대로 그것이 문헌 작자(들)의 방점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그렇지 않고, 본 연구자가 논지를 펴는 데에 편리하도록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서, 문헌 자체를 탓하는 것은 이 분야의 다른 학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낼 위험이 있

기 때문이다. 다만 문헌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을 때는 인쇄 면에 나타난 점이 방점을 표기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거성점(1점)인지 상성점(2점)인지의 결정에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혀 둔다.

(1) 허웅(1963/1972: 360)

끝으로 중부지방 방언에서 고저가 평탄화한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두시언해(杜諺)에서부터 벌써 평탄화의 제일보를 내디딘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러한 고저가 언어의식에 오르지 않게 된 것은 언제쯤일지 결정하기는 다소 곤란하다. 그런데 최현배님에 의하면, 4성점 치기는 세종조에서 중종조 말까지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명종조부터는 얼마큼 해이되어 선조조 임진까지는 부분적으로 수행되었고, 그 이후는 전연히 폐지된 것이라 한다. 4성점 치기가 차츰 해이되다가 드디어 전폐되었다는 사실은, 고저가 언어의식에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고저가락의 평탄화는 대체로 임진 전후로 보아 그리 잘못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1)에서 고저의 평탄화는 성조 체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 허웅(1963/1972)에서는 성조의 소멸을 임진란이 일어났던 해인 1592년 전후로 보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4성점 치기의 폐지에 두고 있다.

(2) 문효근(1974: 291)

16세기 성조의 혼란은 중종기 말까지도 대체로 계속되다가 명종조에 가서 「救荒撮要」·「恩重經」 등 加點 안 된 것이 혹 있었고, 선조조 10년에 가서 「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野雲自警」 등에 가점상 혼란과 上去混記를 한층 더 보이면서, 선조조 13년에 간행된 「禪家龜鑑諺解」까지 여전 가점하였으므로 16세기 혼란한 성조는 대체로 보아 16세기 후반 선조조 임진까지도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점의 폐기는 고저의 의식이 없었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 후 서울 등지에서는 장단으로 바뀌었다 하겠다.

문효근(1974)의 성조 체계 소멸의 원인을 허웅님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헌에 성조를 표시했으면, 성조 체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폐기되었으면 성조가 장단으로 바뀌었다고 곧 성조 체계가 소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기문(1972/1994: 143)

15세기 국어 문헌의 방점 표기는 매우 정연하다. 16세기 전반의 훈몽자회(訓蒙字會)의 방점 표기에서도 성조 체계가 무너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6세기 말엽으로 올수록 방점 표기가 점점 문란해진다. 그리하여 교정청본(校訂廳本) 소학·사서언해(小學·四書諺解)에 오면 방점 표기는 극도로 문란해져서 거의 아무런 규칙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이 때에는 이미 성조체계가 소멸되어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에서는 (1), (2)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비록 성조 표기가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성조의 표기가 극도로 문란해지면 그것을 성조 체계 붕괴로 보고 있어, 성조 체계 소멸의 시기를 이기문(1972/1994)에서는 문효근, 허웅보다는 조금 앞당겨 놓고 있다.

훈몽자회의 방점 표기에서 성조 체계 붕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과 교정청본 소학·사서언해의 방점 표기의 문란에 대한 위의 견해는 근거 제시가 없는 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훈몽자회와 교정청본 소학언해의 방점 자료 분석은 5장에서 할 것이다.

(4) 이기문(1977: 152)

16세기 초의 최세진의 편저들에서 비교적 방점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한학의 대가여서 성조에 민감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나온 번역소학(翻譯小學)이나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는 방점에 상당한 혼란을 보여 준다. 그러나 16세기 중엽의 분문은역역해방(分門瘟疫易解方)에서부터 16세기 후반의 문헌들, 가령 송광사 개관의 야운자경(野雲自警),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과 교정청 소학언해(小學諺解), 사서언해(四書諺解) 등에 이르면 혼란은 극심하다. 이 시기에는 방점을 애당초 하지 않는 책들도 있었다. 신증유합(新增類合), 석봉천자문(石峰千字文)이 그렇고, ……

자신의 토박이말이 성조 언어라는 것과 성조 언어인 자신의 말의 자료에 성조를(/방점을) 표기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간단한 동요 정도를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노래를 악보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또 악보로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를 듣고 틀린 데가 없이 적기는 어려운 것이다.

(5) 김완진(1977: 125)

임진왜란(1592) 직전의 문헌들에까지 방점이 찍혀 내려 온다는 사실은, 비록 일종의 서사 전통에 의하는 것

이었다 하더라도, 표기자들이 자기네 발음의 어떤 운용적 사실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발음의 반영이라고 할 표기의 실태는 이미 성조체계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어진 존재였고, '임진란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는 별로 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같은 대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방점 표기의 전통이 얼마간 더 지속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리 오랜 기간을 지탱해 낼 수는 없는 것이었겠다.

(6) 김완진(1977: 125, 각주)

만약 '붕괴'와 '소멸'이라는 말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성조체계의 붕괴를 16세기 전반에, 그리고 소멸을 16세기 후반에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완진(1977)에서는 16세기 전반에 이미 성조 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임진란 이전의 문헌에 표기된 방점은 의고적(擬古的)인 것으로 보았다. 김완진(1977: 121, 각주)에는 최세진을 의고적인 표기의 명수라고 보고 있다. 15세기 중엽에 정연한 성조 체계가 16세기 전반에 무너졌다는 것과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16세기 이후의 많은 문헌의 방점을 의고적이라고 보는 것은 문헌을 대하는 데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다.

(7) 이철수(1995:185)

15세기 국어 문헌의 방점 표시는 매우 정연하였으나, 16세기 「훈몽자회(訓蒙字會)」의 방점 표기는 문란해졌다.

방점 표기의 문란이 성조 체계 붕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훈몽자회의 방점 표기가 문란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판단도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기문의 관점 (3)에서는 훈몽자회의 표기에 붕괴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7)에서는 훈몽자회의 방점 표기가 문란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8) 박병채(1989/1998: 156)

15세기 문헌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던 방점 표기는 16세기에 들어 혼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여, 한학(漢學)과 어학(語學)의 대가인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에서도 성조체계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성조의 변별력은 16세기 중엽으로 오면서 더욱 약화되고, 후반에 들어서서는 표기 체계가 극도로 문란해지면서

변별 기능을 잃게 되었다. 방점이 표시된 초간본으로는 임진란 직전의 관본(官本) 경서언해류를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으나, 이미 표기의 규칙성이 무너진 채 문란한 모습을 보일 뿐이며, 근대 국어 이후에는 그와 같은 문란된 방점 표기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15세기에 비교적 엄격하였던 성조체계가 불과 1세기를 지나며 문란해진 까닭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갖는 초분절음소로서의 변별력이 대개 잉여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8)에서는 16세기에 들어오면서 훈몽자회에서도 성조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16세기 중엽으로 오면서 성조의 변별력이 더욱 약화되었으며, 16세기 후반에는 성조 표기가 극도로 문란해졌다가 그나마도 살아지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없으며, 성조 체계 소멸의 시기를 16세기 말로 정해 놓고, 이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을 적어 놓고 있다는 점 다른 책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 III. 중세 국어의 성조 이론의 대강

이 연구는 적어도 오늘날의 한반도 전체의 지역 방언을 포함하는 지역에 통일된 공통 조어로서의 고대 국어의 단계가 있었으며, 이 공통 국어가 어떠한 원인으로 성조 언어가 되었으며,<sup>1)</sup> 따라서 오늘날의 한반도의 동북 방언(함경 방언)과 동남 방언(영남 방언/경상 방언)과 영동 방언(강원 동해안 방언)은 모두 이 공통 조어의 자손들이라고 가정한다. 영남 방언이 중세 중부 방언 곧 중세 국어의 직접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밝힐 만큼 학자들의 논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류한다.

위의 가설에 따르면 15세기 국어(학자에 따라서는 중세 국어, 전기 중세 국어)는 함경 방언, 경상 방언, 강원 동해안 방언과 더불어 모두 성조의 발생과 발달을 경험한 공통 국어 조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성조 체계가 비교적 정연한 대응 관계를 보일 것으로 본다.

1) 성조 언어가 된 시기와 그 연대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전혀 밝힐 도리가 없지만, 필자의 추측으로는, 2계열이었던 장애음이 단일 계열로 변하면서 변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잉여적인 높낮이(고조와 저조)가 변별적인 자질로 바뀌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방어에 전탁음(유성음) 계열의 성모가 무성음화하면서 잉여적이었던 평성의 두 가지 음조가 음평과 양평의 두 성조로 쪼개지는 현상은 없던 성조 체계가 생겨나는 원인을 밝히는 데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김차균(1999, 2006)을 포함하는 여러 논저들에 제시된 수많은 자료들은 이러한 대응 관계를 증명해 주고 있다.

훈민정음 본문의 끝에 있는 성조의 표시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9) 훈민정음해례 합자해(우리말 율김은 한글학회: 1997)

平聲安而和(평성은 편안하고 부드럽다.)

上聲和而舉(상성은 부드럽고 들린다.)

去聲舉而壯(거성은 들리고 씩씩하다.)

평성을 「편안하고 부드럽다.」고 하여 거성 「들리고 씩씩하다.」 하다는 대립시킨 것은 /ㅋㅌㅊ고/, /ㄱㄷㅌㅍㅈ/와는 대조적으로 /ㄱㄷㅌㅍㅈ/에서 오는 느낌과 같은 무표적인 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성은 평성에서 오는 느낌과 거성에서 오는 느낌을 겸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표 성조를 □(0점)으로, 유표 성조를 그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거성(1점, ◻)과 상성(2점, :◻)으로 표시한 것은 성조를 바라보는 마음의 바탕에 유표성 이론이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당시 중국어의 북경 방언의 고평(55, 음평)과 고승(35, 양평)의 두 가지인데, 우리말에서 이들과 비슷한 음조를 가진 성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평성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각각 거성과 상성이라고 이름하고, 중국어의 두 평성과는 전혀 다른 낮은 음조를 가진 성조를 평성이라고 한 것은 비판 없이 중국의 음운론을 따르지 않고, 우리말 토박이의 성조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훈민정음해례에는 우리말 성조의 음가에서 받은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3개의 성조는 안(安)에서 화(和)로, 화(和)에서 거(擧)로, 거(擧)에서 장(壯)으로 3단계로 설명되어 있다. 곧 상성의 설명을 이루는 말은 평성의 후반부와 거성의 전반부로 되어 있어서, 상성이 평성과 비슷하거나 같은 높이에서 시작되어, 거성과 비슷하거나 같은 높이에서 끝나는 음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굴곡조일 가능성을 보인다. 기원적으로 상성이 평성과 거성의 병치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15세기 국어에서는 상성을 두 성조의 병치로 보아서 성조를 저조와 고조의 2성조 체계로 보아서 아니 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 국어의 성조를 현대 경남 방언의 그것과 비교할 때는 하나의 성조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음소 분석에서 음소의 수를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지만, 줄여서 전체적인 기술이 오히려 번거롭고 토박이들의 인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음조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10) 훈민정음 본문의 끝 부분

(( ) 속은 필자가 보충)

凡字必合而成音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무릇 글자는 반드시 (초·중·종성이) 어울려야 소리가 (/음절이) 되니,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 점을 더하면 상성이며, 점이 없으면 평성이요, 입성은 점 더함은 같지만 빠르다.》

이 내용은 전체가 우리 토박이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동국정운식 한자말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무릇 글자는 반드시 어울려야 소리가 된다(凡字必合而成音)’는 동국정운식 한자말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입성은 점 더함은 같으나 빠르다(入聲加點同而促急)’도 동국정운식 한자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성조에 대한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언해본 훈민정음(이하에서 ‘훈민정음언해’라고 부름)에 나오는 4성주이다.

(11) 훈민정음언해 사성주 (입성에 대한 설명 생략)

平聲聲·은·뭇·낮가·쁜·소·리·라

上·쌍聲聲·은·쳐서·미·늦·잡·고·乃

:내·終·중·이·노·픈·소·리·라

去·경聲聲·은·뭇·노·픈·소·리·라

(12) 사성주에 대한 허웅(1963)의 현대말 율김

낮은 가락 (평성)

낮다가 높아가는 가락 (상성)<sup>2)</sup>

높은 가락 (거성)

(13)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四聲通解」下卷 卷末 附錄「國音」條)<sup>3)</sup>

凡本國語音 有平有仄 平音哀而安 仄音有二焉 <…생략…> 厲而舉者爲上聲<sup>4)</sup> 直而高者爲去聲爲入聲 故國俗言語 平聲無點 上聲二點 去聲<sup>5)</sup>入聲一點 <…생략…>

2) 코노(1951)에서는 ‘상성은 처음이 낮고 끝이 높은 소리다.’로 옮겼고, 중세 국어 성조에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와 같이 옮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성이 하나의 독립된 성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웅(1963)의 율김을 따른다.

3) 김차균(2006)에서 재인용

4) 爲上聲은 원문에는 없으나, 이돈주(2003)에서 보충된 것이다. 그 이전에 코노(1951), 김완진(1977)에서도 같은 보충을 했다.

5) 去聲은 원문에는 去國으로 잘못(?) 적혀 있는데, 이돈주(2003)에서 바로 잡은 것이다.

[무릇 우리 나라의 어음은 평음과 측음이 있으니 평음은 슬픈 듯 편안하고, 측음은 들이 있는데, <…중략…> 거세게 들리는 것은 상성이며, 곧고 높은 것은 거성과 입성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속된 언어가 평성은 점이 없고, 상성은 점이 들이며 거성과 입성은 점이 하나이다.] (우리말 율김은 이돈주(2003:332, 336)을 따름.)

박태권(200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3)에서는 최세진이 우리말의 성조를 2분법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평성과 측성으로, 다시 측성을 성성과 거성으로 나누고 있다.

(14) 훈몽자회 범례

凡字音高低 皆以字傍點之有無多少 爲準 平聲無點 上聲二點 去聲入聲皆一點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遠 入聲直而促 諺解亦同

(들읻 ·근字·즈 音음·의 노·푼·며 낮가·오·미 :다 字·즈·겨:퇴 點·덤·이 이시·며 :엿·스·며 하·며 :저·금·으로 ·보·라물 사물거·시·니 낮가·온 소리엿 字·즈·는 平聲聲·이·니 點·덤·이 :엿·고 기리혀 나중 들티는 소리엿 字·즈·는 上:상聲聲·이·니 點·덤·이 :둘·히·오, 곧고 바르 노·푼 소·리·엿 字·즈·는 去·거聲聲·이·니 點·덤·이 하나·히·오, 곧고 썩른 소·리·엿 字·즈·는 入·입聲聲·이·니 點·덤·이 하나·히·라. 諺:언文문·으로 사·김흔·디 흥가·지·라.)<sup>6)</sup> ·또 字·즈· 들·히 본·딛 소리 두·고 다른 ·뜯 다른 소·리·로 ·썩·면 그 달·이 ·썩·는 소·리·로 그 ·궂귀·에 들·임·하·느니 (行·널·행 平聲聲 本·본音음 行·저·제항 平聲聲 行·행·덕·행 去·거聲聲)

여기에서 평성, 상성, 거성의 조치에 대한 설명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15) 훈몽자회에서 뽑은 조치(調值) 설명

낮가·온 소리엿 字·즈·는 平聲聲  
기리혀 나중 들티는 소리엿 字·즈·는 上:상聲聲  
곧고 바르 노·푼 소·리·엿 字·즈·는 去·거聲聲

(15)의 조치 설명과 (11)의 조치 설명을 비교하면, 평성과 거성의 그것은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으나, 상성의 설명은 (11)에서는 똑바른 사선으로 되어 있으나, (15)에서는 곡률이 완만하고 첫 부분과 중간 부분이 수평에 가깝다가 뒤끝이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6) 훈몽자회의 사성에 대한 이 설명은 한문을 우리말로 직역한 것이 아니라, 한문에 없는 4성의 음가 설명을 더 보탠 것이다.

것은 15세기에는 상성이 평·거의 축약에서 독립된 성조로 나아간 지 얼마 아니 되었지만(따라서 아직 복잡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15)에서는 상성이 이상 더 복잡조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음조적인 특징이 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6) 소학언해범례

들읻 字·즈·音음·의 높낮가·이·를 :다 거·릿 點·덤·으·로·써 ·법·을 삼·을·디니 點·덤 :엿·슨이·는 편히 낮가·이 흥·고 :두 點·덤·은 기·리·혀 들·고 흥 點·덤·은 바르 노·푼 흥거·시·니·라 訓:훈蒙蒙字·즈·會:회·예 平聲聲·은 點·덤·이 :엿·고 上:상聲聲·은 :두 點·덤·이·오 去:거聲聲 入·입聲聲·은 흥 點·덤·이·로·디 ·요스·이 時·시·俗·속·에 音음·이 上:상·去:거·성·이 서르 섯기·여·써 과글·리 고·타·기 어·려온·디·라 :만·일 :다 本·본音음·을 ·쓰·면 시·속 들·기·예 :히·과:흙·이 이실 故·고·로 戊:무·寅·인·년 晷·에 上:상·去:거 :두 聲聲·을 시·속·을 조·차 點·덤·을 ·하·야·실·시 ·이·제 ·이 ·법·네·를 의·지 ·하·야·써 날·그리·를 便·편·케 하·니라

이 범례 속에 최세진(1527)의 훈몽자회 범례를 인용하고 있고, 성조에 대한 설명과 그 표시법도 훈몽자회의 것을 따르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학언해의 문장은 훈몽자회의 문장보다 더 간결하고 다듬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훈몽자회에는 없는 내용이 첨가되었는데, 한자음은 시속음(=현실한자음), 특히 상성과 거성이 중국어에서 그 본디 성조(=본음)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미 우리의 토박이에게 우리식으로 굳어져서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굳어진 현실음을 그대로 따라야 하지 그것을 본음으로 바꾸면 해괴하게 들린다는 것이다.<sup>7)</sup>

2장에서 몇 사람의 국어 음운사 연구자들의 말을 인용했지만, 그들의 말대로 16세기 말기의 소학언해의 기록자의 머리에 성조 체계가 이미 붕괴 또는 소멸했다면, (16)과 같은 당당하고 자신 있는 설명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평성, 상성, 거성이 분명하게 구별되었지만, 우리말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본디 가지고 있던 중국식의 조치가 자연이 우리말의 성조의 조치에 동질화될 수 밖에 없었다. 동질화 과정

7) 보기를 하나 들면 언해본 훈민정음에서는 ‘去·거聲聲’, 훈몽자회에서는 ‘去·거聲聲’, 소학언해에서는 ‘去:거聲聲’으로 적혀 있다. 이는 ‘去’의 본음은 거성(·□)이지만, 소학언해 제작시에 속음(현실한자음)은 상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리하여 소학언해 제작 시대에 ‘去聲’을 시속음인 /:거성/으로 소리내지 않고, 본음인 /:거성/으로 소리내었다면 해괴하게 들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18) 창원 방언의 대립 및 중화 자료 (김차균: 2006)

표시 방점 표상	최종 방점 표상, /성조[음조]표상
가. /밭:골 HL, 밭:풀 HM/ /찬:세:손, 산:새:알, 밭:일:꾼/ /노:랫:말, 삼:십:일, 삼:십:년/ /삼:천:만, 삼:천:석/ /꽃:밭/ /삼:천:년/	→ 밭:골, 밭:풀 /HM/[HM] → 찬:세:손, 산:새:알, 밭:일:꾼 /HM <sup>2</sup> /[HM <sup>2</sup> ] → 노:랫:말, 삼:십:일, 삼:십:년 /HM <sup>2</sup> /[HM <sup>2</sup> ] → 삼:천:만, 삼:천:석 /H <sup>2</sup> M/[MHM] → 꽃:밭 /H <sup>2</sup> /[MH] → 삼:천:년 /H <sup>3</sup> /[MHH/MMH]
나. /·물:새, ·쌀:밥, ·쌀:술/ /·십:세:손, ·물:새:알, ·십:만:년/ /·해:찬:들, ·코:뿔:소, ·십:일:년/ /·일:년:산, ·백:년:객, ·일:천:년/	→ ·물:새, ·쌀:밥, ·쌀:술 /M <sup>2</sup> /[HH/MM] → ·십:세:손, ·물:새:알, ·십:만:년 /M <sup>3</sup> /[HHM] → ·해:찬:들, ·코:뿔:소, ·십:일:년 /M <sup>3</sup> /[HHM] → ·일:년:산, ·백:년:객, ·일:천:년 /M <sup>3</sup> /[HHM]
다. /:들:일, :들:소, :들:꽃/ /:돈:계:산, :일:벌:매, :계:산:전/ /:오:백:만, :일:숨:씨, :돈:육:십/ /:벨:똥:벨, :개:꼬:리, :개:똥:밭/	→ :들:일, :들:소, :들:꽃 /L <sup>2</sup> /[LM] → :돈:계:산, :일:벌:매, :계:산:전 /L <sup>3</sup> /[LMM] → :오:백:만, :일:숨:씨, :돈:육:십 /L <sup>3</sup> /[LMM] → :벨:똥:벨, :개:꼬:리, :개:똥:밭 /L <sup>3</sup> /[LMM]

에서 본디 평성은 대부분 우리말에서도 평성으로 남고, 소수만 거성이나 상성으로 변했으며, 본디 거성이었던 것은 우리말에서 다수가 상성으로 변했으며, 소수는 거성 그대로 남고, 또 약간은 평성으로 변한 것도 있었다. 또 본디 상성이었던 것은 우리말에서는 다수가 상성으로 남고, 소수는 거성이나 평성으로 변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입성이었던 것은 우리말에서 거성과 같은 성조 1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디 입성이었던 것을 놓아두고 큰 줄거리를 말하면 본디 평성은 대다수가 시속음에서 평성으로 남고, 본디 거성과 상성의 대다수는 우리말에서는 상성으로 남았으며, 본디 평성이었던 것의 소수, 거성이었던 것의 소수, 상성이었던 것의 소수가 시속음에서는 거성으로 남았다. 박태권(2002: 102)의 통계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동국정운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7) 語音則四聲皆明 字音則 上去無別

(중국어에서는 사성이 다 구분되지만, 우리 현실 한자음에서는 상성과 거성이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 현실 한자음에 대하여 (16)에서는 ‘上:상去:거성이 서르 셋기·여·뻬(上去相混)’으로, (17)에서는 ‘상거무별(上去無別)’로 표현했지만, 후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 IV. 현대 방점법 이론

현대 방점법 이론은 중세 국어의 유표성 이론과 현대 프라하학파의 기능음운론에서 대립과 중화의 이론을 접목하여 만든 성조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김차균(1999, 2003, 2006)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의 수준에서 나온 성조 체계의 유형론에 매이지 않고, 높낮이가 낱말의 뜻을분화하는 변별적인 기능을 하면 모두 진정한 성조 언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말의 성조 방언들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조 언어라고 보된다. 다만 우리말에는 성조들이 약하든 강하든 모두가 중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의 성조들과는 차이가 있다.

김차균(2006)에 따르면 다음의 표 (18)에서 화살표 왼쪽의 기저 표상을 보면 기저에서는 체계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성조 연결이라도 다 허용되고 있어서 우리말도 중국어와 다름없는 성조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18)의 왼쪽 표시 방점 표상에서 /□, ·□, :□/을 각각 /H, M, L/로 바꾸면 기저성조표상이 되므로 첫 두 낱말만 기저성조표상을 적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생략했다. 표 (18)의 끝 두 낱말 /꽃:밭/과 /삼:천:년/만 중화가 일어나지 않은 보기이다. 중화된 후의 표상인 화살표 오른쪽 표상 곧 최종 방점 표상은 2음절의 경우는 /:□·□/, /·□·□/, /□·□/, /□□/의 네 가지 뿐이며, 이들을 / / 안에 성조로 표시하고, [ ] 안에 음조 표시로 바꾸어 넣으면 각각 /L<sup>2</sup>/[LM], /M<sup>2</sup>/[HH/MM], /HM/[HM], /H<sup>2</sup>/[MH]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표 (18)의 화살표 오른쪽에서 3음절을 보면 그 경우는 방점 표시가 /:□·□·□/, /·□·□·□/, /□·□·□/, /□□·□/, /□□□/의 다섯 가지 뿐이며, 이들을 성조형과 음조 표

(19) 창원 방언

#물#	/M/[M]		
#마·신·다#	/HM <sup>2</sup> /[HM <sup>2</sup> ]	·물+마·신·다→물·마·신·다	/M <sup>4</sup> /[HHM <sup>2</sup> ]
#먹는·다#	/H <sup>2</sup> M/[MHM]	·물+먹는·다→물·먹·는·다	/M <sup>4</sup> /[HHM <sup>2</sup> ]
#팔·더·라#	/M <sup>3</sup> /[HHM]	·물+·팔·더·라→물·팔·더·라	/M <sup>4</sup> /[HHM <sup>2</sup> ]
#사·마·구#	/L <sup>3</sup> /[LMM]	·물+·사·마·구→물·사·마·구	/M <sup>4</sup> /[HHM <sup>2</sup> ]
#나·간·다#	/L <sup>3</sup> /[LMM]	·물+·나·간·다→물·나·간·다	/M <sup>4</sup> /[HHM <sup>2</sup> ]

시로 바꾸면 각각/L<sup>3</sup>/[LMM], /M<sup>3</sup>/[HHM], /HM<sup>2</sup>/[HM<sup>2</sup>], /H<sup>2</sup>M/[MHM], /H<sup>3</sup>/[MHH/MMH]가 된다.

표 (18)에 있는 낱말들은 대부분 독립된 낱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 이름씨나 어절을 이룰 때 나타나는 중화의 보기들이지만, 이름씨뿐만 아니라 합성 풀이씨를 이룰 때, 또 이름씨에 토씨가 결합되거나, 풀이씨 줄기에 굴곡의 가지가 붙을 때도 같은 중화 현상을 볼 수 있다. 문법적인 구성을 따지지 않고, 운율적 낱말 안에서 거성(·□), 상성(:□) 뒤에서 모든 성조는 축성(·□)으로 중화되는 현상을 창원 방언에서 몇 개의 보기를 더 든다.<sup>8)</sup>

이제 창원 방언에서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실현되는 규칙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20) 창원·김해 방언의 음조형 실현 규칙

- ㄱ. 평축형 H<sub>2</sub>M<sup>n</sup> → ([MH<sub>1</sub>M<sup>n</sup>], [M<sub>1</sub>HM<sup>n</sup>])/# — #
- ㄴ. 거성형 M<sub>2</sub> → [HHM<sub>0</sub>]/# — #  
(단, 정보초점이 아니면 M<sup>2</sup>는 [MM])
- ㄷ. 상성형 L<sub>3</sub> → [LMM<sub>0</sub>]/# — #  
(단, L<sup>2</sup>는 [LM])

창원 방언을 포함하는 우리말의 모든 성조 방언에 두루 적용되는 성조의 중화 규칙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21) 성조의 중화 규칙

- ㄱ. 《□ — 》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축성)으로 바뀐다.
- ㄴ. 《{·□, :□, ·回, :回} — 》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축성)으로 바뀐다.<sup>9)</sup>

8) 운율적인 낱말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상성과 거성의 대립은 불가능하다. 이런 위치에 나타나는 1점(·□)을 축성이라 한다. 축성은 상성과 거성의 상위 범주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9) 이 규칙에서 ·回과 :回은 각각 음상성과 음거성을 표시하는 부호이다. 창원 방언에서는 이 두 성조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 중의

(단, 이 중화 규칙의 정용은 현대 국어의 모든 성조 방언에서 필수적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임의적이다.)

규칙 (21)은 현대 우리말의 모든 성조 방언의 다수 자료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중세 국어에도 이 규칙은 다수의 자료에 적용되었기 때문에,<sup>10)</sup> 중세 국어와 현대 성조 방언들에서 운율적 낱말 또는 어절 안에서 두 번째 이하에 나타나는 축성은 그 위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나타나는 방점의 종류와 위치는 대다수의 자료에 일치한다. 규칙 (21)이 곧 평성 뒤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가 축성으로 중화되는 보기는 (22)과 같고, (23)은 중화가 일어나지 않고 평성 뒤에서 평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보기이다.

(22) 창원 방언(상성과 거성이 평성 뒤에서 중화된다.)

- /가실H<sup>2</sup>#·구·름M<sup>2</sup>/→/가실·구·름/  
/H<sup>2</sup>M<sup>2</sup>/[MHM<sup>2</sup>]
- /소굼H<sup>2</sup>#·장·사M<sup>2</sup>/→/소굼·장·사/  
/H<sup>2</sup>M<sup>2</sup>/[MHM<sup>2</sup>]
- /가을H<sup>2</sup>#·채·소L<sup>2</sup>/→/가을·채·소/  
/H<sup>2</sup>M<sup>2</sup>/[MHM<sup>2</sup>]
- /삼한H<sup>2</sup>#·사·온L<sup>2</sup>/→/삼한·사·온/  
/H<sup>2</sup>M<sup>2</sup>/[MHM<sup>2</sup>]

(23) 창원 방언(평성 뒤에서 평축형은 방점의 변동이 없다.)

- /나무H<sup>2</sup>#·송·다H<sup>2</sup>M/→  
/나무·송·다H<sup>4</sup>M/[MH<sup>3</sup>M]
- /나무H<sup>2</sup>#·먹는·다H<sup>2</sup>M/→  
/나무·먹는·다H<sup>4</sup>M/[MH<sup>3</sup>M]
- /술H<sup>2</sup>#·먹는·다H<sup>2</sup>M/→  
/술·먹는·다H<sup>3</sup>M/[MH<sup>2</sup>M]

하나나 둘 다가 나타나는 방언을 위해서 이들을 넣어 놓았다.  
10) 중세 국어에서는 소수의 자료에는 중화 규칙 (21)이 적용되지 않았고, 합성어에는 둘째 성분에는 적용이 임의적이었다.



/술H#마·신·다H<sup>2</sup>M/→

/술마·신·다H<sup>2</sup>M<sup>2</sup>/[MHM<sup>2</sup>]

/팔H#다리H<sup>2</sup>/→/팔다리H<sup>3</sup>/[MH<sup>2</sup>]

평성은 평성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뒤따르는 성조들을 축성(·□)으로 중화시키기고, 상성과 거성(방언에 따라서는 상성, 거성, 음상성, 음거성)은 모든 종류의 뒤따르는 성조를 축성(·□)으로 중화시킨다. 따라서 평성은 약한 중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상성과 거성(방언에 따라서는 상성, 거성, 음상성, 음거성)은 강한 중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평성의 약한 중화 기능과 축성의 강한 중화 기능으로 말미암아 최종 방점형(따라서 최종성조형)의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점 연결의 방법(=방점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5음절어에 한하여 창원·밀양·고성 방언의 방점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창원·밀양·고성 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

방점형	보통의 표시법	간략 표기법
ㄱ. 평축형	① □·□·□·□·□	□·□ <sup>4</sup>
	② □□·□·□·□	□ <sup>2</sup> ·□ <sup>3</sup>
	③ □□□·□·□	□ <sup>3</sup> ·□ <sup>2</sup>
	④ □□□□·□	□ <sup>4</sup> ·□
	⑤ □□□□□	□ <sup>5</sup>
ㄴ. 거성형	·□·□·□·□·□	·□ <sup>5</sup>
ㄷ. 상성형	:□·□·□·□·□	:□ <sup>5</sup>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음절어의 경우 평축형은 5가지, 거성형과 상성형은 각각 한 가지이다. 이런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 보면, 6음절어의 경우는 평축형은 6가지, 거성형과 상성형은 각각 한 가지이고, n음절어의 경우는 평축형은 n가지이고 거성형과 상성형은 각각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거성형과 상성형(방언에 따라서는 음거형, 음상형도 포함)은 합쳐서 축성형이라 부른다.

표 (24)에서 간략 표기법은 방점의 어깨에 평성의 수와 축성의 수를 적은 것인데, 평축형의 다섯째 표상 □<sup>5</sup>는 평성만 5개이므로 더 하위 분류하면 평성형이라 부를 수도 있으나, 이것을 평축형에 넣어 놓은 것은 □<sup>5</sup>가 □<sup>5</sup>·□<sup>0</sup>(평성 5개, 축성 0개와 같기 때문이다. 순행 평성동화 등의 여러 가지 성조 변동 현상에서 □<sup>5</sup>는 평축형의 하위 구성원에 들어가는 것임이 밝혀졌다 (김차균: 2003).

(24)ㄴ을 간략 표시법으로 ·□<sup>5</sup>로 적은 것은 당연하

11) 2성조 방언에서는 성조는 중화 기능이 없느냐 있느냐로 구분되는데, 평성(□)은 중화 기능이 없고, 축성(·□)은 중화 기능이 있다.

게 보이겠지만, (24)ㄷ을 :□·□<sup>4</sup>로 적지 않고 :□<sup>5</sup>로 적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24)ㄱ~ㄷ의 간략 표기법은 평성과 축성의 수를 적은 것이지만, 평성과 거성 및 상성으로 구분하여 적은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24)ㄴ과 (24)ㄷ의 간략 표기법은 둘 다 축성이 5개이기 때문에 위첨자를 5로 적은 것이다. 다만 3성조 방언에서는 축성형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거성으로 시작되는 축성형(=거성형)은 ·□<sup>5</sup>로, 상성으로 시작되는 축성형(=상성형)은 :□<sup>5</sup>로 적은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성조형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성조의 중화가 일어나는 위치이며, 상성과 거성의 대립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 표시에서 적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sup>12)</sup>

어떤 언어이건 초기의 음운 분석 과정에서는 대립은 가장 중요한 음운 분석 원리이며, 이 경우 최소대립쌍(최소대립어, minimal pairs)을 찾게 된다. 분절음의 연쇄체가 같을 때 /·□·□·□·□/과 /□·□·□·□/은 첫 음절의 성조만 거성과 평성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최소대립어이다. 그러나 /·□·□·□·□/과 /□□·□·□/은 첫 두 음절의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대립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과 /:□·□·□·□/은 첫 음절이 거성과 상성으로 대립하고 다른 음절은 같기 때문에 최소 대립어이며, /:□·□·□·□/과 /□·□·□·□/도 첫 음절이 상성과 평성의 대립을 보이며 다른 음절은 같으므로 최소대립어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경남 방언의 하나인 창원 방언의 세 낱말 /이·사/[HM](醫師), /:이·사/[LM](理事), /이·사/[MH](移徙) 가운데서 /이·사/[HM](醫師)와 /:이·사/[LM](理事)는 /□·□/와 /:□·□/의 관계이므로 최소대립어이고, /이·사/[HM](醫師)와 /이·사/[MH](移徙)도 /□·□/와 /□□/의 관계이므로 최소대립어이다. 그러나 /:이·사/[LM](理事)와 /이·사/[MH](移徙)는 /:□·□/와 /□□/의 관계이므로 최소대립어가 아니다.

표 (24)에서 최소대립어를 골라 둘씩 짝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12) 같은 이유로 5음절 음거성형은 ·回<sup>5</sup>로, 5음절 음상성형은 :回<sup>5</sup>로 적고, n음절로 된 음거성형은 ·回<sup>n</sup>으로, n음절 음상성형은 :回<sup>n</sup>으로 적는다.

(25) 창원·밀양·고성 방언 최소대립쌍

ㄱ. □·□·□·□·□ □□·□·□·□	ㅋ. □·□·□·□·□ □·□·□·□·□
ㄴ. □□·□·□·□ □□□·□·□	ㄷ. □·□·□·□·□ □·□·□·□·□
ㄷ. □□□·□·□ □□□□·□	ㅌ. □·□·□·□·□ :□·□·□·□·□
ㄹ. □□□□·□ □□□□□	

과 [H]는 나타날 수가 없고 오직[M]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사/(理事)에서 둘째 음절에 [L]이나 [H]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말에서 /XV-□VY/의 환경에 [ㄷ, ㅌ, ㅊ, ㅌ, ㅌ]이 발음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헛일을 하는 것이다. 경남 방언이 왜 3단3성조 방언인가에 대한 더 계속적인 논의는 정원수(1994, 1995), 이문규(1997), 이호영(1993), 구현옥(2003), 김세진(2004 ㄱ, ㄴ), 김세진(2006), 박숙희(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대립과 중화에 바탕을 둔 방점법으로 성조를 적으면, 국어의 모든 방언을 같은 표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높낮이가 중심이 되는 성조 표상은 방언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몇 개 방언을 방점과 성조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7) 성조 대응 관계(27)

성조 분류	중세 국어	창원·김해·밀양	진주·고성	대구·성주·안동	
평성	가장 낮은 음조 /L/ □	고 /H/ □	고 /H/ □	고 /H/ □	
측성	거성	가장 높은 음조 /H/ ·□	중 /M/ ·□	중 /M/ ·□	저 /M/ ·□
	상성	높아 가는 음조 /R/ :□	저: /L/ :□	저: /L/ :□	저: /M/ :□

  

성조 분류	울진·삼척	강릉 방언	대구(20대)	북청·육진·룡정
평성	고 /H/ □	고 /H/ □	고 /H/ □	저 /M/ □
측성	거성	저 /M/ ·□	저 /M/ ·□	고 /H/ ·□
	상성	고: /H/ :□	승 /R/ :□	

표 (25)를 잘 검토해 보면 최종 방점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6) 최종 방점형에서 대립과 중화

- ㄱ. 어두에서는 평성, 상성, 거성이 대립한다.
- ㄴ. 평성과 측성이 섞여 있는 경우 평성은 반드시 측성을 앞선다.
- ㄷ. 평성 뒤에서 상성, 거성은 측성(1점, ·□)으로 중화된다.
- ㄹ. 두 번째 이하의 측성 위치는 중화의 위치이다.

국어 성조학자들 중에는 경남 남부 방언들에서 [LM]과 [LH]의 표면적인 대립의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조 체계는 /L/과 /H/의 2성조 체계이며, /L/, /M/, /H/의 3성조 체계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임석규:2003, 이동명:2003).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은이를 포함하는 3성조론자의 /:이·사/[LM](理事)와 /이·사/[MH](移徙)는 둘 다 /LH/로 적어야 된다는 것이며, /:이·사/(理事)를 [LM]으로 듣고, /이·사/(移徙)를 [MH]로 듣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3성조 체계가 아니라고 하는 경그러나 /:이·사/(理事)에서 둘째 음절 위치는 중화의 위치이기 때문에 [L]

표 (27)과 같은 방법으로 몇 개 방언의 방점형을 적고, 그 오른쪽 옆에 성조형을 붙여 적으면 다음과 같다.

### V. 중세 국어와 현대 방언 방점 표상의 대응 규칙

중세 국어의 문헌들에서 방점 표기가 문란했을 것이라는 20세기의 선진 학자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검증할 책임이 있다. 그 검증 방법은 중세 국어의 방점 표시와 현대 성조 방언의 방점 표시 사이의 대응 관계의 정연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일단 현대 방점 이론이 타당한 것이고 표기자료도 정확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다.

(29) 현대 방점법 이론과 그 표기 자료가 완벽하게 잘 된 경우

- ㄱ. 현대 방언 자료와 중세 국어의 자료의 대응 관계가 정연하면 중세 국어의 방점 표시는 바르게 된 것

(28) 창원 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과 성조 표상

방점형	보통의 표시법	간략 표기법	성조 표상	음조 표상
ㄱ. 평측형	□·□·□·□·□	□·□ <sup>4</sup>	HM <sup>4</sup>	[HM <sup>4</sup> ]
	□□·□·□·□	□ <sup>2</sup> ·□ <sup>3</sup>	H <sup>2</sup> M <sup>3</sup>	[MHM <sup>3</sup> ]
	□□□·□·□	□ <sup>3</sup> ·□ <sup>2</sup>	H <sup>3</sup> M <sup>2</sup>	[MH <sup>2</sup> M <sup>2</sup> ]
	□□□□·□	□ <sup>4</sup> ·□	H <sup>4</sup> M	[MH <sup>3</sup> M]
	□□□□□	□ <sup>5</sup> (=□ <sup>5</sup> ·□ <sup>0</sup> )	H <sup>5</sup> (=H <sup>5</sup> M <sup>0</sup> )	[MH <sup>4</sup> ]
ㄴ. 거성형	·□·□·□·□·□	·□ <sup>5</sup>	M <sup>5</sup>	[HHM <sup>3</sup> ]
ㄷ. 상성형	:□·□·□·□·□	:□ <sup>5</sup>	L <sup>5</sup>	[LMMmm]

이다.

ㄴ. 현대 방언 자료와 중세 국어의 자료의 대응 관계가 정연하지 못하면 중세 국어의 방점 표시는 잘못된 것이다.

(29) 현대 방점법 이론과 그 표기 자료가 완벽하게 잘 된 경우

중세 국어의 방점 이론이 타당한 것이고 표기 자료도 믿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다.

(30) 중세 방점법 이론과 그 표기 자료가 완벽하게 잘 된 경우

ㄱ. 현대 방언 자료와 중세 국어의 자료의 대응 관계가 정연하면 현대 방언의 방점 표시는 바르게 된 것이다.

ㄴ. 현대 방언 자료와 중세 국어의 자료의 대응 관계가 정연하지 못하면 현대 방언의 방점 표시는 잘못된 것이다.

중세 방점 자료와 현대 양자 사이의 대응 관계가 정연하지 못할 경우 양쪽 이론이 다 잘못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나, 필자의 40년 동안의 오랜 방언 성조 연구 경험으로 보아 이런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본장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중세 국어와 현대 3성조 방언(이 연구에서는 창원 방언) 사이의 대응 규칙을 아래와 같이 세울 수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1음절~5음절 어절만 규칙을 제시하고, 다른 것은 이해 준해서 이해하기 바란다.<sup>13)</sup>

13) 여기에서 (:/·)□은 □, ·□, :□ 들 중의 하나를 가리킨다.

(31) 대응 관계(/대응 규칙)

ㄱ. 1음절어

중세 국어	창원 방언
□	□
·□	·□
:□	:□

ㄴ. 2음절어

중세 국어	창원 방언
□·□	□·□
□:□	□·□
□□	□□
·□(:/·)□	·□·□
:□(:/·)□	:□·□

ㄷ. 3음절어

중세 국어	창원 방언
□·□(:/·)□	□·□·□
□:□(:/·)□	□·□·□
□□·□	□□·□
□□:□	□□·□
□□□□□□	
·□(:/·)□(:/·)□	·□·□·□
:□(:/·)□(:/·)□	:□·□·□

ㄹ. 4음절어

중세 국어	창원 방언
□(:/·)□(:/·)□	□·□·□·□
□:□(:/·)□(:/·)□	□·□·□·□
□□·□(:/·)□	□□·□·□
□□:□(:/·)□	□□·□·□

□□□·□                    □□□·□  
 □□□:□                    □□□·□  
 □□□□                    □□□□  
 □(:/·)□(:/·)□(:/·)□    ·□·□·□·□  
 :□(:/·)□(:/·)□(:/·)□    :□·□·□·□  
 □·□(:/·)□(:/·)□(:/·)□ □·□·□·□·□

ㄷ. 5음절어

중세 국어                    창원 방언  
 □·□·□(:/·)□(:/·)□(:/·)□ □·□·□·□·□  
 □□·□(:/·)□(:/·)□        □□·□·□·□  
 □□:□(:/·)□(:/·)□        □□·□·□·□  
 □□□·□(:/·)□            □□□·□·□  
 □□□:□(:/·)□            □□□·□·□  
 □□□□·□                  □□□□·□  
 □□□□:□                  □□□□·□  
 □□□□□                   □□□□□  
 ·□(:/·)□(:/·)□(:/·)□(:/·)□ ·□·□·□·□·□  
 :□(:/·)□(:/·)□(:/·)□(:/·)□ :□·□·□·□·□

중세 국어와 현대 방언 성조에서 표면형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 하나의 어절 안에서 현대 방언에서는 최초의 방점이 상성점(:□)이든 거성점(·□) 또는 측성점(·□)이든 간에 그 이하는 중화 규칙 (21)에 의해서 측성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첫 방점 이외에는 점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상태를 정연찬(1977), 김완진(1977)에서는 거성불연삼 규칙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그들의 거성은 상성을 평성과 거성의 병치로 보기 때문에 거성이 3개 연속되는 것(X·□·□·□Y)도 피할 뿐만 아니라 상성 뒤에 거성이 두 개 연속되는 것(X:□·□·□Y)도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X·□·□·□Y, X:□·□·□Y뿐만 아니라 거성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1점(·□)이 둘 연속되거나, 상성 뒤에 1점(·□)이 오거나, 또는 어휘적 형태소의 마지막 음절이 1점(·□)이거나 상성(2점, :□)일 때 그 뒤에 1점(·□)의 문법형태소가 오는 것까지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물론 경향일 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몇 개 자료만 제시한다.

(31)이 믿을 만한 대응 규칙이라는 근거 자료를 15세기의 훈민정음해례와 훈민정음언해과 16세기의 소학언해범례에서 자료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32) 15세기 국어            창원 방언  
 :굽병(해례)                :굽·비·이  
 :말쌈·미(훈언)            :말·쌈·이  
 :말쌈·미(훈언)            :말·쌈·이

:사름:마·다(훈언)        :사·람·마·다  
 :저비(燕)(해례)        :제·비  
 魯入:사름(孔子)(해례):사·람  
 ·고욤(栲)(해례)        ·기·감  
 ·부형(鵠鷗)(해례)    ·부·혜·이  
 ·새·로(훈언)            ·새·로  
 ·스·물(훈언)            ·수·물  
 ·이·롤(훈언)            ·이·를  
 ·이런(훈언)            ·이·런  
 이·셔·도(훈언)        있·어·도  
 ㅁ·춤:내(훈언)        마·침·내  
 ㅎ·고·져(훈언)        하·고·자

(33) 16세기 국어

소학언해범례              창원 방언  
 :학:괴:흙:이              :학·괴·함·이  
 本·본음음·을            ·본·음·을  
 上:상聲聲·은            :상·성·은  
 訓:훈蒙蒙字·즈會:화·예    :훈·몽#·자·회·에

(32)와 (33)으로는 자료가 빈약하여 규칙 작용된 자료와 적용되지 않은 자료를 소학언해 선행편에서 자료를 뽑아 보충한다.

(34) 16세기 국어

소학언해 선행	창원 방언
ㄱ. :경:계(戒,誠)(16,46)	:경·계
:대·궐문(33)	:대·궐·문
:세:상(世) (52)	:세·상
:시:호(諡) (123, 125, 127)	:시·호
:효:도(孝) (14, 22, 22, 27, 53)	:효·도
:지:상(相) (35, 128, 128)	:제·상
·백:성(民) (30, 49, 63, 75)	·백·성
년:호 (29, 60, 65, 67, 89)	년·호
사:치(奢) (129)	사·치
신:하(臣) (36, 36, 39, 77)	신·하
ㄴ. :경:계(戒) (16, 46)	:경·계
:대·궐·문(宮闕門) (77)	:대·궐·문
:세:상(世) (17, 76, 85)	:세·상
:시·호 (1, 4)	:시·호
:효·도(孝) (7, 12, 26, 78)	:효·도
:지·상 (75, 98)	:제·상
·백·성(民) (9)	·백·성
년·호 (31, 91, 104)	년·호
사·치(奢) (129, 129, 131)	사·치
신·하(臣) (36, 36, 42, 77)	신·하

(34)ㄱ은 중화가 일어나지 않은 자료이고, (34)ㄴ은 중화가 일어난 자료이다. 그리고 (34)는 모두 소학언해 선행편에서 찾은 것이다. 이들에 대응하는 창원 방언에서는 모두 중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원 방언에서는 중화로 말미암아 둘째 음절 이하에서 기저의 상성은 모두 1점(·□, 축성)으로 나타나고, 상성(□, 거성 또는 축성(·□) 아래에서는 기저의 모든 성조(□, ·□, :□)가 다 축성(·□)으로 중화되어 나타난다.

훈민정음해례에 들어 있는 우리 토박이말을 모두 뽑아서 창원 방언과 대조하여 ①방점의 대응이 규칙 (31)에 완전히 합치하는 것, ②방점의 대응이 규칙 (31)에 부분적으로 합치하는 것, ③대응 규칙 (31)에 어긋나는 것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④훈민정음해례에 나타나는 낱말이 창원 방언에 쓰이지 않거나, 뜻은 같되 어원이 다른 것의 순서도 정리하면 (35)~(38)과 같다.

(35) 훈민정음해례과 창원 방언의 자료가 대응 규칙에 맞는 것

해례 자료	창원 방언
ㄱ. :감(柿):감	
:널(板)	:널
:돌(石)	:돌
:뢰(山)	:메
:밀(蠟)	:밀
:벌(蜂)	:벌
:범(虎)	:범
:별(星)	:벨
:실(絲)	:실
:갓(海松)	:갓
:종(奴)	:중
:저비(燕)	:제·비
:심(泉)	:새·미
:굼병(蟻螯)	:굼·비·이
:사름	:사·름
ㄴ. ·옷(衣)	·옷
·갈(笠)	·갓
·갈(刀)	·칼
·굽(蹄)	·굽
·낫(鎌)	·낫
·논(水田)	·논
·담(牆)	·담
·뒤(茅)	·띠
·마(薯)	:마
·못(釘)	·못
·못(池)	·못
·물(水)	·물

·밥(飯)	·밥
·손(手)	·손
·신(屨)	·신
·엿(飴餠)	·엿
·울(籬)	·울
·입(口)	·입
·자(尺)	·자
·채(鞭)	·채
·체(篩)	·체
·톱(鋸)	·톱
·과(蔥)	·과
·피(稷)	·피
·혀(舌)	·헤
·혜(炬)	·해
·힘(桴)	·심
·달(月)	·달
·틈(隙)	·틈
·짜(地)	·땅
·톡(顎)	·택
·팍(小豆)	·팍
·고욤(栲)	·기·감
·ㄱ래(楸)	·가·래
·폴(蠅)	·파·리
·낫(釣)	·낙·시
·키(箕)	·체·이
·뱀(蛇)	·배·에·미
·부형(鶻鷂)	·부·헤·이
ㄷ. 뭍(臂)	팔
벼(稻)	벼(/나·락)
딱(隻)	작
숯(炭)	술
콩(大豆)	콩
흙(土)	흙·크
고·티(繭)	꼬·치
구·리(銅)	구·리
누·에(蚕)	누·에
다·야(匣)	대·야
드·래(汲器)	뜨·래
버·들(柳)	버·들/버들
벼·로(硯)	베·루
엿·때(酉時)	달·때
사·비(大蝦)	새·우(/새·비)
사·슴(麋)	사·슴
서·리(霜)	서·리
서·에(流澌)	서·에
소·다(覆物)	쏟·아
어·름(水)	어·름



우·케(未春稻)	우·케
이·아(綜)	이·애
조·히(紙)	조·이
호·미(鉏)	호·미
노로(獐)	노리
빛꽃(梨花)	배꽃
브엷(조)	부숙
아스(弟)	아우
드리(橋)	다리
울미(薏苡)	울미

·혀(引)	(없음)
·무퀴(靄)	(:우·박)
·비육(鷄雛)	빼개·이
·발·측(跟)	(발꿈·치)
ㄷ. 섭(薪)	(없음)
약(龜鼈)	(없음)
괴·여(我愛人)	(없음)
괴·여(人愛我)	(없음)
드·뵈(瓠)	(없음)
삼도(蒼朮菜)	(없음)
쥬련(梲)	(없음)
러·울(獺)	(너구·리)
슈·름(織)	(:우·산)
자감(蕎麥皮)	(미물꺾다·기)

(36) 훈민정음해례와 창원 방언 자료가 대응규칙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

해례 자료	창원 방언
간(柱)	지둥
납(猿)	잔내·비
넙(脅)	옆구·리
싹(楓)	신나·무
남상(龜)	남새·이
두텁(蟾)	뚜끼·비
열의갓(狐皮)	야시가죽

(37) 훈민정음해례와 창원 방언 자료가 대응규칙에 어긋나는 것

해례 자료	창원 방언
ㄱ. :남(穀)	나·락
ㄴ. ·반되(螢)	반·디
·굴(蘆)	:골
ㄷ. 그력(鴈)	·가·러·기
덜(佛寺)	·절
붓(筆)	·붓
쇼(牛)	·소
쏘·다(射)	·쏘·다
죽(飯 수)	·죽
울창(蝸蚪)	·울·채·이

창원 방언에 없거나 있어도 어원이 달라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38) 훈민정음해례와 창원 방언의 자료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료

해례 자료	창원 방언
ㄱ. :김(縉)	(:비·단)
:너시(鴉)	(없음)
ㄴ. ·과(琴柱)	(없음)
·깃(巢)	(없음)

대응 관계의 연구에서 (38)과 같이 어원이 다르거나 대응 자료를 창원 방언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정도 대응하는가는 대응 규칙에 완전 대응하는 (35)와 완전히 어긋나는 (37)의 비율만으로도 충분하다. (37)의 부분적인 대응 자료는 대응 관계의 검토에서 긍정적인 자료로 볼 수도 있으나, 굳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응 관계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우리가 인용한 선진 학자들이 모두 15세기의 자료는 정확하다고 예측한 그 대로이다.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모든 방점 문헌들의 자료를 검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표기가 문란해서 이미 성조 체계가 붕괴되었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의고적으로) 방점을 표시했다고 보는 대표적인 문헌 중의 하나인 선조조 교정청에서 간행한 소학언해에서 범례 부분의 자료를 검토해 보는데서 중세 문헌의 검토는 그치기로 한다.

(39) 소학언해범례 자료

<완전 대응>

소학언해	창원 방언
:다	:다
:다	:다
:두	:두
:두	:두
:두	:두
上:상	:상
:만·일	:만·일
:업·고	:업·고
戊:무寅인년	:무·인·년
上:상聲성·은	:상·성·은

上:상去:거성이	:상#:거·성·이
:혁:괴:흙·이	:혁·괴·합·이
:업·순이·논	:업·는·것·은
·이	·이
字·즈스	·자
故·고로	·고·로
·법·을	·법·을
·요스이	·요·새·애
·이·제	·이·제
·쓰·면	·쓰·면
·하야·빠	·하·여·서
入·입聲:은	·입·성·은
·법·네·를	·법·레·를
本·본音:을	·본·음·을
·하·야·실·시	·하·였·을·쎄
去:거	:거
去:거聲	:거·성
訓:훈蒙蒙字·즈會:회·에	:훈·몽#:자·회·에
훈	한
훈	한
칙·에	책·에
하·고	하·고
겨·릿	절·에
가·리	길·이 <sup>14)</sup>
노·피	높·이
들·고	들·고
便편·케	편·케
시·속	시·속
조·차	조·차
시·속·을	시·속·을
時시俗·속에	시·속·에
어·려·운·다·라	어·려·운·지·라
聲聲·을	성·을
音音·의	음·의
고·타·기	고·타·기
듣·기·에	듣·기·에
널·그리·를	읽·을·이·를 <sup>15)</sup>
삼·을·디니	삼·을·지·니
의·지	의·지
편히	편·히
바르	바르
서르	서로
이실	있을
平평聲:은	평성·은

14) <문법 구조와 뜻이 다름>

15) /읽을·이·를/도 가능

섯기·여·빠	썩여·어·서
홀거·시나·라	할것·이·니·라

(40) 소학언해범례 자료

<부분 대응>

소학언해	창원 방언
하·니라	한것·이·라
물잇	무·룻
음음이	음·이
낮가·이	낮·게 <sup>16)</sup>
놈낮가·이·를	높낮·이·를

(41) 소학언해범례 자료

<대응 규칙에 어긋남>

소학언해	창원 방언
點:덤	·점
點:덤·으·로·빠	·점·으·로·쎄
點:덤·은	·점·은
點:덤·은	·점·은
點:덤·을	·점·을
點:덤이·오	·점·이·오
點:덤이로·디	·점·이·로·대
點:덤이	·점·이

(42) 소학언해범례 자료 <어원이 다르거나 해당 자료가 없음>

소학언해	창원 방언
·혀	(·끌·어, 어원이 다름)
과글·리	(·급·히, 어원이 다름)

(42)에서는 중세 국어와 창원 방언 사이에 어원이 다르므로 대응 관계를 밝히는 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료이다. (40)은 부분적인 대응이지만, 대응 관계의 판단에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소 대응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불완전한 점이 있어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40)과 (42)를 제외하면 대응 규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39)와 완전히 어긋나는 (41)의 비율로 당시의 성조 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수가 있다. 《(39) : (41) = 56 : 8》로 압도적으로 대응 관계에 맞는 자료가 우세하다. 교정청에서 발간한 소학언해는 발간 연대가 1586년으로 16세기 말기를 대표하는 문헌인데, 여기에서 전혀 성조 체계가 무너진 것을 흔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1592년의 임진란 이후에 방점 표기가 살아졌다고 하여 성조 언어에서 비성조언어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16) <문법 구조가 다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세진(1527)의 훈몽자회와 최세진(1517)의 박통사언해(상)의 첫 쪽과 둘째 쪽의 자료를 검토하여 그 대응의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이 두 자료는 대조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 재료 제시를 생략한다.

중세 국어 자료에서 얻은 통계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난의 ( ) 안의 숫자는 바란 연대를 나타낸다.

표 (43)을 보면 약간의 통계 수치 차이가 있지만, 유의미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15세기 방점의 표기가 가장 정확했고, 16세기 초에 붕괴되어 16세기 말 전후에 소멸되었다는 가설은 전혀 맞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 방점 표기가 살아있지 500년이 넘어도 강원 동해안 방언, 함경 방언, 영남 방언은 아직도 성조

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견해들이 중세 국어의 방점이 무엇이었으며, 그 표시가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두고 했던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었는가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중세 국어의 방점 자료와 현대 방언의 방점 자료의 정연한 대응 관계는 양쪽의 이론과 그 실천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타당성의 증거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발표자는 김차균(1977)에서부터 서양음악의 1옥타브를 24등분하는(따라서 임의의 '도'에서 위로 다음의 '도'까지를 25 등급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이 방법을 따르면 가장 음조 실현의 폭이 넓게 나타나는 경남 동남부 방언의 최저의 높이(=상성형의

(43) 방점 표기 문헌	대응 규칙에 맞음	대응 규칙에 어긋남
훈민정음해례 (1446)	84	10 (16%)
번역방통사(상) (1517)	58	6 (10%)
훈몽자회 (1527)	58	5 (9%)
소학언해 (1586)	56	8 (14%)

체계가 뚜렷이 남아 있으며, 전라 방언은 현재 시점에서 성조 방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까운 과거까지 성조 방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임진란 후에 방점 표기가 살아졌다 하더라도 성조 체계는 적어도 일백년은 더 계속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VI. 청취음운론의 약점과 그 치료 방법<sup>17)</sup>

학문이 현대적인 것이 되려면 그 이론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에 우리말 성조를 연구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의 수는 아직 세 자리 수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음조의 기술에 있어서나 음운 이론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

첫 음절)을 '도'에 고정하면, 최고의 높이(=평측형의 마지막 평성 음절)의 높이가 '솔'에 배정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1등급의 높이인 '도'에서 15등급의 높이인 '도'에 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음향학적인 측정을 하지 못했던 탓으로 같은 세대의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기술음운론, 유럽의 기능주의 음운론, 최근의 생성음운론의 각 지파들, 그리고 오늘의 최적성이론에까지 성조는 들뿐이라야 하며, 예외적으로 셋 정도까지 있는 언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15등급이니 하는 것은 음운 이론에 대한 무식의 소치라고 할 뿐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대치틀(substitution frame) 안에서 대립하는 음조를 성조라고 하고, 그렇게 분석된 성조 자체를 음조와 동일시하였다.<sup>18)</sup> 음조적인 실현을 /고/와 /저/의 둘(또는 드물게는 /고/, /중/, /저/의 셋으로 기술하려고 했다. 그러나 변이음조의 기술을 외면하는 이러한 최악의 이론은 음향음성학자들에게 외면을 당한지 오래이다.<sup>19)</sup> 음성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관심을

17) 본 장의 내용의 대부분은 앞으로 나올 《성철재·권오욱·이지향·김차균(2007), 「말소리의 높낮이 측정을 위한 청취 등급과 표준 고도 설정 및 닳음비에 의한 음조형의 확대와 축소」, (한국언어학회, 앞으로 나올 논문).》에서 더 보완되고 다듬어져서 발표될 것이다.

18) 생성음운론과 최적성이론에서는 그러한 분석자체마저도 거부하고, 특히 최적성이론에서는 변이음조 기술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19) 가까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그들의 표준어인 토

둘러 보자.

(44) 영어학사전

(조성식 외: 1990-102, 103)

음의 고저(pitch), 음의 크기(loudness), 음질(quality), 음의 길이(length)의 네 가지 범주로 말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이들은 주관적인 범주이고, 관계되는 성대진동(vocal-cord vibration)/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호흡력(breath effort)/강도(intensity), 공동의 모양(cavity shape)/spectral structure), 그리고 물리적 지속(physical duration)의 생리적·물리적 범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성대의 진동이나 기본주파수를 두 배하면 더 높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정확히 두 배의 높은 소리로 인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강도를 두 배로 할 때 소리의 크기가 두 배로 인지되지는 않는다. ……

지각되는 소리의 높이와 주파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쾨니히 척도(Koenig scale)가 있다. (Ladefoged(1962: 78 참조) 보다 정밀한 척도가 요구될 때에는 멜 척도(Mel scale)가 사용된다.(Denes & Pinson 1963: 85)

소리의 크기의 비교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에 있다. 이를 위하여 데시벨(decibel; db)이라는 척도를 사용한다.

(45) 음성학과 음운론

(구회산 외: 1998-346, 347)

정현파음의 주파수 변화에 지각, 즉 피치 구별은 가청 주파수 값이 올라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진다. 1,000Hz 이하에서는 청자들은 4 내지 5Hz 사이의 주파수 변화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 변화를 지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차적으로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약 8,000 Hz까지는 40 내지 50 Hz 이하의 변화를 인간의 청각기관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워진다.

구회산 외(1998: 347) 「주파수와 피치간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치증가치와 주파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지각단위인 멜(Mel)을 고안했다. 1,000 Hz 이하에서는 실제 지각되는 피치와 주파수 사이에 상당히 비례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대수적으로 나타난다. …… 주파수에서

---

교 방언은 우리의 함경 방언과 거의 같은 성조 체계와 성조형과 음조형 실현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일찍부터 음운학자들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으나, 20여 년 전부터 음향음성학자들은 그들의 음운론자들의 성과를 거의 참조하지 않고 있다.

멜단위로의 변환은 Beranek(1949), Lindsay와 Norman(1977), 그리고 O'Shaughnessy(1987)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지적된 그대로 주파수와 피치간의 관계는 대수(log)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멜단위(멜척도, 멜단위 수치, Mel scale)의 언제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도 인간의 직관에 주파수와 피치간의 관계는 대수(log)적인 관계가 알려져서 음악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음의 높이는 일정한 단위 시간 내에 울리는 진동수, 또는 주파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해진다. 즉 음의 높이는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보통 1초간의 진동수는 그 단위를 사이클(c/s), 혹은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Heinrich Rudolf Hertz, 1857~1894)의 이름에 따라 헤르츠(Hz)로 표시한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인 가청 한계(가청한계, audible limits)는 대체로 1초에 16~20,000Hz이지만, 음악에 쓰이는 범위는 88건의 피아노 음역인 30~4,000Hz이다. 윤양석(1985)을 참조.

음의 높이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선정된 진동수를 표준 고도(標準高度, standard pitch)라고 하는데, 음악을 연주할 때 모든 악기는 이 표준 고도에 따라서 조율(調律)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 고도는 시대에 따라 변경되었다. 표준 고도가 정해지기 전 19세기말까지는 시대와 국가를 달리하여 여러 가지 표준을 쓰던 것을 1939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 규격 협회(International Standards Association)의 제2회 국제 조율 회의(2. Inter-national Chamber Pitch Conference)에서 440Hz로 결정되었는데, 오늘날 각국에서 거의 이것을 표준 고도로 사용하고 있다. 윤양석(1985)을 참조.

오늘날의 음율은 8도를 12개의 반음으로 평균하여 등분하는 12평균율(equal temperament)이다. 12평균율은 옥타브를 수학적으로 12개의 평등한 음정으로 나누고, 반음(semi-tone)으로 정하여 음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12평균율에서는 반음의 2배는 온음(whole tone)이 되고, 그 밖의 모든 음정은 반음이 중첩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김차균(1978) 이후에 많은 자신의 논저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8도(=1옥타브)를 수학적으로 24개의 평등한 음정으로 나누고, 이것을 반의 반음(1/4-tone, quarter-tone)으로 정하고, 왼쪽에서 28번째 건(key) 곧 <도-음, C-음>이 내는 소리의 주파수 130.8Hz를 1등급으로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1/4음씩 높아짐에 따라 한 등급씩 올려서 《2등급, 3등급, 4등급, …》으로 하면, 1/4음씩 낮아짐에 따라 《0등급, -1등

급, -2등급, -3등급, ...》 언어 분석을 위한 참조 고도를  $c=130.8\text{Hz}$ 로 한다는 것이다.

음악에 12평균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낮이를 더 미세하게 24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방언의 토박이들의 높낮이에 대한 인식은 12등급으로는 기술할 수 없을 만큼 민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화 속에서 전달의 초점이 되어 보통의 어조(음조형이 강화되거나 구정보나 단순한 배경 정보가 되어 약화되는 경우가 아닌 어조)로 말할 경우 경남 창원 방언의 토박이들은 가장 낮은 음(상성형의 첫 음절에 얹힘)을 1등급으로 고정하면 가장 높은 음(평측형의 마지막 평성 음절에 얹힘)은 15등급이 된다.

피아노 건반의 왼쪽에서 1번째 A건(다-장조에서 '라' 음)이 27.5 Hz이고, 13번째 A건이 55.0 Hz이며, 25번째 A건이 110.0 Hz이다. 그리고 37번째 A건이 220.0 Hz이고, 49번째 A건이 440.0 Hz이다. 이것은 《55.0,  $55.0 \times 2$ ,  $55.0 \times 2 \times 2$ ,  $55.0 \times 2 \times 2 \times 2$ ,  $55.0 \times 2 \times 2 \times 2 \times 2$ , ...》의 등비수열로 되어 있다. 피아노의 임의의 한 건의 주파수  $x$  Hz와 그보다 바로 위의 건이 가리키는 주파수는  $\sqrt{12} \text{ of } 2^x$  Hz가 된다. 발표자는 김차균(1978) 한 옥타브를 24평균율로 나누어 그것을 등급이라는 이름으로 음조형을 기술해 왔다. 그러면 임의의 등급이 가리키는 주파수를  $x$  Hz라 할 때 그보다 한 등급 위는  $\sqrt{24} \text{ of } 2^x$  Hz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연속된 건이 내는 소리의 《 $\sqrt{24} \text{ of } 2^x$  Hz,  $\sqrt{24} \text{ of } 2^x \times \sqrt{24} \text{ of } 2^x$  Hz,  $\sqrt{24} \text{ of } 2^x \times \sqrt{24} \text{ of } 2^x \times \sqrt{24} \text{ of } 2^x$  Hz,  $\sqrt{24} \text{ of } 2^x \times \sqrt{24} \text{ of } 2^x \times \sqrt{24} \text{ of } 2^x \times \sqrt{24} \text{ of } 2^x$  Hz, ...》라는 등비수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귀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실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에 의한 음조형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는 성철재 교수, 권오욱 교수, 그리고 발표자와의 공동 연구에 의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자세한 연구 발표는 조만간에 대한음성학회나 한국어학회에서 있을 것이다.

다음의 산비둘기 소리 흉내를 생각해 보자.

(46) #구-#구우#구구구#

이 소리는 높낮이가 단조롭고 고정되어 있다. 현대 음악에서 우리는 보통 반음(1/2도)까지 구별하고 있다.

(47) 호운자 너엄자니이이 예엿

니임이 그으리워

파- 미 레- 파미- 도 미-파

술- 술 미파피술

(끝에서 셋째 음절과 둘째 음절 사이가 반음이다.)

대부분의 성조론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음치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은 음조를 /L/(저)와 /H/(고)의 둘로만 고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성조론에서 최악의 것만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기를 얽매어 놓고 있는 것이다. (46)과 같은 단조로운 소리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높이를 가지고서만 비로소 그 기술이 가능한 것이다.

(48) #구-#구우#구구구#

#도-#도미#레파파#

이제 우리는 20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성조의 유형론에서 벗어나서 성조를 자연적인 특성에 맞게 정의하고, 올바른 음조 기술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겠다.

(49) 성조는 변별적인 음조형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이며, 그 자질은 비분절적인 것이다.

성조를 비분절적인 특성으로 본 것은 서남부 전남 방언이나 광주 방언과 같은 준성조 방언에서는 운율적인 자질인 모음이 길이 이외에도 [기, 후두캐김]과 같은 자질이 고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50) 음조형 실현 규칙은 성조형에 적용된다.

규칙 (20)의 입력부는 개개의 성조가 아니라 성조형임을 보면 (50)을 별도로 명기란 까닭이 이해될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51) 평3형과 상성형 대조

ㄱ. 이사하·고·는(移徙) : 못·만·났·는·데, :이·사·하·고·는(理事) 만·났·다.

ㄴ. :이·사·하·고·는(理事) : 못·만·났·는·데, 이사하·고·는(移徙) 만·났·다.

(52) 평3형과 상성형 대조

ㄱ. 전주택·시[MHHM] :진·주·택·시[LMMM] :몬·따·라·간·다.

ㄴ. :진·주·택·시[LMMM] 전주택·시[MHHM] :몬·따·라·간·다.

(53) 상성형과 거성형의 대조

ㄱ. :진·주·택·시[LMMM] ·진·해·택·시[HHMM] :몬·따·라·간·다.



ㄴ. 진·해·택·시[HHMM] 진·주·택·시[LMMM] :몬·따·라·간·다.

(54) 상성형과 거성형의 대조

ㄱ. 전주택·시[MHHM] 진·해·택·시[HHMM] :몬·따·라·간·다.

ㄴ. 진·해·택·시[HHMM] 전주택·시[MHHM] :몬·따·라·간·다.

(51)~(54)의 예문들에 명기된 두 어절의 [ ] 안의 음조 표상은 동남부 경남의 방언 토박이들의 다수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한다.<sup>20)</sup> 성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차이를 귀로 구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자 자신의 귀로 구별 못한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거나, 구별이 되더라도 [L]과 [H]의 두 개의 기호로 구별해서 표시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는 것은 성조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므로, 삼가야 할 것이다.

## VII. 조옮김의 개념과 닳음의 비율에 따른 확대와 축소<sup>21)</sup>

같은 성조형의 실현인 음조형이 항상 같은 높이 등급의 연결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다음을 보자.

(55) 표준 음조형/변음조

ㄱ. 진·주·택·시/L<sup>4</sup>/

[LMMm, 1-10-10-4]/[4-13-13-7, ...]

ㄴ. 진·해·택·시/M<sup>4</sup>/

[HHMM, 13-14-7-4]/[10-11-4-1, ...]

ㄷ. 전주택·시/H<sup>3</sup>M/

[MHHM, 6-12-15-4]/[3-9-12-1, ...]

20) 최근 1년 동안의 방언 조사 경험에 따르면, 대도시인 부산과 그에 인접한 양산, 김해 방언의 50세 전후의 토박이들의 말에서 [MHHM], [MHHM], [MHHM], ...가 [LMMM], [LMMM], [LMMM], ...로 합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창원 방언과 함안 방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합류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21) 본 장의 내용의 대부분은 앞으로 나올 《성철재·권오욱·이지향·김차균(2007), 「말소리의 높낮이 측정을 위한 청취 등급과 표준 고도 설정 및 닳음비에 의한 음조형의 확대와 축소」, (한국언어학회, 앞으로 나올 논문).》에서 더 보완되고 다듬어져서 발표될 것이다.

음조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악에서 조바꿈의 개념을 가지고 (55)에서 보는 것과 같은 표준 음조형과 변음조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 변음조에서 각 음절마다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표준 음조형이 된다.

그러나 영화의 화면에서 같은 사람이 실제보다 크게 확대되어 나타날 수도, 축소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56) 창원 방언 /백야시·도, 백야시·는/(표준 음조형: [6-12-14-4])

<예문> ①백야시·도 ②백야시·도 ·저·런 ③백야시·는 :없·을·끼·다.

①백야시·도 /H<sup>3</sup>M/ [MHHM]

②백야시·도 /H<sup>3</sup>M/ [MHHM]

③백야시·는 /H<sup>3</sup>M/ [MHHM]

<실현 등급>

①[11-22-29-24]

②[13-14-20-15]

③[14-13-16-13-5]

<조정 등급(조바꿈에 의함)>

①[6-17-24-19]

②[6-8-14-9]

③[6-5-8-5-(-3)]

세 어절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표준 음조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첫 어절은 첫 음절과 셋째 음절의 차이가 18등급이나 되며, 둘째 어절은 그 차이가 8등급이 되어 표준형과 거의 같으며, 셋째 어절은 그 차이가 2등급 밖에 되지 않는다. 첫 어절은 전달 초점어절이 되어 음조형이 확대된 것이며, 둘째는 거의 표준형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넷째 어절은 이미 정보량이 낮아서 음조형이 약화된 것이다. 훈련이 덜된 성조론자들은 비록 토박이들이 잘 알아차리는 약화된 음조형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토박이들은 영화의 화면에서 실물보다 몇 배로 축소된 사물이라도 실물과 같은 크기의 사물로 알아맞히는 것처럼 축소된 음조형도 정확하게 그 형을 판별하는 것이다.

## VIII. 맺음말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서 말소리를 다루는 학문에서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거의 없었던 과거

에는 높낮이 기술에서 청각음성학이 다른 조음음성학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과 장비의 개발로 부분적으로 음향음성학에 의해 청각음성학이 대치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청각음성학은 여전히 음향음성학보다 우위에 있고 일차적인 것이다.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서 140여 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말로 된 대부분의 문헌들에 방점으로 성조를 표시했다. 이들은 지역 방언적인 차이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음조적인 차이가 없지 않았을 텐데도 그 방점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서양음운론을 받아들인 우리의 앞선 학자들의 다수가 중세기의 우리의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운을 분야 연구의 찬란한 성과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방법론의 개발과 더불어 말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그들의 체계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이 들어났다. 그리고 현대 성조 방언들에서 성조에 대한 연구도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쌓여 있다.

그러나 청각음성학은 고저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하는데 있어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서양음운론에서 취약한 부분만 붙들고 있는 음운학자나 음성학자들에게는 청각음성학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청각음성학이 실험을 동반한 음성학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우리의 전망은 밝은 것이라 할 수 있게 되었다. 140여년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방점 문헌자료와 현대 방언성조 연구에서 얻은 성과는 우리 분야의 학문을 상당 기간 동안 선도해 나갈 것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郭忠求 (1994), 「咸北 六鎮方言의 音韻論」, 國語學叢書 20, 國語學會, 太學社.  
 [2] 구현옥(2003), 「국어 성조 기술 방법 비교 연구」, 「한글」 260, 한글학회, 5-40쪽  
 [3] 구희산 외(1998). 음성학과 음운론. 한신문화사. (Clark, J. & C. Yallop(1998).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 Phonology. Basil Blackwell Ltd.의 번역판.)  
 [4] 김봉국(1999),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國語研究 150, 國語研究會.  
 [5] 김세진(2004), 「우리말 방언 성조 체계 설정 방법」, 語文研究 44. 어문연구학

회. 79-124쪽  
 [6] 김주석·최명옥(2001), 「경주 속담·말 사전」  
 [7] 김주원(1991),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 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語學研究」 27권 3호. 서울대학교 語學研究所.  
 [8] 김주원(2000), 「영남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어문학」 69. 91-115쪽  
 [9] 김차균(1993), 「방점법」, 언어학 제15호. 한국언어학회. (145-167쪽).  
 [10] 김차균(1998), 「나랏말과 겨레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 강의」, 태학사. 24-29, 337-413쪽  
 [11] 김차균(1999),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21-42, 657쪽.  
 [12] 김차균(2001), 「고성 방언과 성주 방언 성조의 비교」, 「한글」 253, 한글학회, 5-101쪽  
 [13] 김차균(2002)ㄱ, 「국어 방언 성조론」, 도서출판 역락.  
 [14] 김차균(2002)ㄴ, 「영호남 방언 운율 비교」, 도서출판 역락, 22, 50-55쪽.  
 [15] 김차균(2002)ㄷ, 「안동 방언과 밀양 방언 성조 비교」,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학회, 5-99쪽.  
 [16] 김차균(2002)ㄹ,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 비교」,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1-80쪽.  
 [17] 김차균(2002)ㅁ, 「밀양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 비교」,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323-492쪽.  
 [18] 김차균 (2003), 「영남 방언 성조의 비교」, 도서출판 역락, 15쪽~840쪽.  
 [19] 김차균·고광모·김주원·정원수(2000), 「영남 방언 고 호남 방언의 운율 비교」, 「語文研究」 34, 語文研究學會, 57-128쪽.  
 [20] 박종덕 (2000), 「안동 서후 지역어 음운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1] 박숙희 (2003), 「동사 운율구의 내부 구조와 음조 실현」, 「어문학」 제80집, 한국어문학회, 77~104쪽.  
 [22] 성철재·권오욱·이지향·김차균(2007), 「말소리의 높낮이 측정을 위한 청취 등급과 표준 고도 설정 및 닳음비에 의한 음조형의 확대와 축소」, (한국언어학회, 앞으로 나올 논문).  
 [23] 신기상 (1999), 「동부경남방언의 고저장단연구」, 월인.  
 [24] 李敦柱 (2003),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25] 이동명(2003), 「경남 방언 차용어 성조 연구」, 「언어」 제28권 3호 451-486쪽.  
 [26] 이문규(1997), 「대구방언의 성조 중화 현상」, 「문학과 언어」 제18집.  
 [27] 이문규 (1998), 「성조소 기술 방법론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 연구」 15, 언어과학회. 213~231쪽.

- [28] 이문규 (2002), 「대구방언과 안동방언의 성조 비교 연구」, 『어문학』 제77집, 한국어문학회.
- [29] 이호영 (1993), 「서울말과 경상도 방언의 운율 유형론」, 『언어학』 제15호, 한국언어학회, 353~382쪽.
- [30]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31] 임석규(2003),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 37-69쪽.
- [32] 전학석(1993),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 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 . 태학사.
- [33] 鄭然燦 (1977), 「慶尙道方言의 音調研究」, 『國語學叢書』 5, 『國語學會』, 塔出版社.
- [34] 정원수(1994). 「경북 방언의 복합 동사 형성에 나타나는 성조 변동 연구」, 『한글』 제224호. 한글학회. 73-94쪽.
- [35] 趙成植 외(1990). 「英語學 辭典」, 『新國雅語社』.
- [36] 曹廷換(2000). 「韓國語昌寧方言의アクセント体系 一 体言を中心に 一」, 『韓國語アクセント叢論』,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附屬文化交流研究施設 東洋諸民族言語文化部門, 21~49쪽.
- [37] 차재은(1999), 「중세국어 성조론」, 월인.
- [38] 최명옥(1998), 「現代國語의 聲調素體系」, 『國語學』 31, 『國語學會』. 23-52쪽
- [39] 최세진(1527/1973), 「訓蒙字會」, 大提閣影印本.
- [40] 최세진(1517/1974), 「四聲通解」, 大提閣影印本.
- [41] 최영미 (2000), 「삼척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42] 허 응(1970). 「國語音韻學(改稿新版)」, 正音社.
- [43] 허 응(1972).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초판은 1963).
- [44] 福井玲(후쿠이)(2000). 「韓國語諸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 『韓國語アクセント叢論』,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附屬文化交流研究施設 東洋諸民族言語文化部門, 1~20쪽.
- [45] Kim, Gyung Ran(김경란) (1988), The Pitch-accent System of the Taegu Dialect of Korean with Emphasis on Tone Sandhi at the Phrasal Leve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anshin Publishing Co., pp.98~109.*
- [46] Ramsey, S.R.(램지)(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탑출판사.*
- [47] Ladefoged, Peter(1962. 1974<sup>10</sup>), Elements of Acoustic Phonetics.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48] Denes, P. B. & E. N. Pinson(1963). The Speech Chain. *Bell Telephone Laboratories.*

## <방점 문헌 자료>

- 훈민정음(訓民正音); 1446}, 대제각 영인본, 1973.
- 훈민정음(訓民正音); 1446}, 재단법인 한글학회 펴냄, 1997.
- 훈민정음(訓民正音); 1446}, 재단법인 한글학회 펴냄, 1997.
- 석보상절(釋譜詳節); 1447}, 한글학회 출판부 펴냄, 1961.
- 소학언해(小學諺解); 1586}, 대제각 영인본, 1974.
- 훈민정음(음김과 해설), 재단법인 한글학회 펴냄, 1997.